

ESSD와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교육*

최 석 진(한국교육개발원 사회과교육연구부장)

I. 머리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개발을 멈추느냐 않느냐는 논의까지 나타나고 있다. 개발론자들은 당연히 멈출 수 없다고 하지만 환경론자들은 멈추는 것이 더 이성적이며 정당하고, 미래에 대한 올바른 통찰로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의 대안으로 요즈음 환경과학계에서 많이 논의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여기서 Development(이 단어를 학자에 따라 개발, 또는 발전으로 번역함)는 생활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needs)를 충족하면서 보다 향상된 생활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Our Common Future, 1988), 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도 본다.

지속적 개발은 지구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자연적 체계를 위협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자원 개발의 제한, 대체 자원과 기술의 개발, 종의 다양성 유

지, 사회 제도 및 과학 기술의 변화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다양하고 어려우나, 그중 손쉬운 해결 열쇠 중에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환경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ESSD를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UNESCO, UNEP와 UN보고서(1991.7.5) 등에서 ‘ESSD를 위한 장기간의 환경전략으로서 현재와 다음 세대에 환경교육과 훈련의 실시 이상으로 중요한 공헌이나 역할은 없다’까지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하여 외국에서는 많은 논의와 구체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특히 우리나라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므로,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 상태를 알아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교육의 역할과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II. ESSD와 삶의 질 향상

1. ESSD 개념의 등장

*본 원고는 필자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학술심포지움(1994.6)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충한 것임.

국제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논의하면서 분명해진 것은 환경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개도국의 경우 환경문제는 대체로 발전의 결여, 즉 극심한 빈곤의 조건을 극복하려는 투쟁에서 유래한 것인데 반하여,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이 환경악화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환경의 영향에 관해서도 선진국의 경우 환경악화는 생활의 질을 악화시키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자연자원의 기반이 파괴되면 생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Bartelmus, 1986). 그러므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보전을 위해서 공업화를 중단한다는가, 발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영속화시킬 뿐만아니라 그들의 생존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더구나 지구오염과 자원고갈의 책임이 지금까지 공업화와 경제성장을 통해서 엄청난 천연자원을 사용하고 오염원을 배출한 선진국에 있다고 할 때, 개도국으로서는 그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환경보호정책을 채택한다는 것이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범세계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참여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등장한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다(양종희, 1994).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는 1980년 ‘자연과 천연 자원을 위한 국제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이 ‘살아있는 자원의 보존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려는 전반적인 목적’을 가진 ‘세계적 보존전략’(the World Conservation Strategy)을 제시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후 UN에서 세계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이 개념은 더욱 정교해지고 널리 퍼지게 되었다. 1983년 UN총회에 의해 설립된 ‘환경과 발전을 위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1987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미래세대가 그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거기에 포함된 두가지 기본 개념으로 욕구의 개념과 한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WECD, 1987). 욕구의 개념은 세계의 貧者들의 본질적 욕구를 뜻하는 것으로 거기에 최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한계의 개념은 기술과 사회조직이 현재의 욕구 및 미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의 능력에 부과하는 한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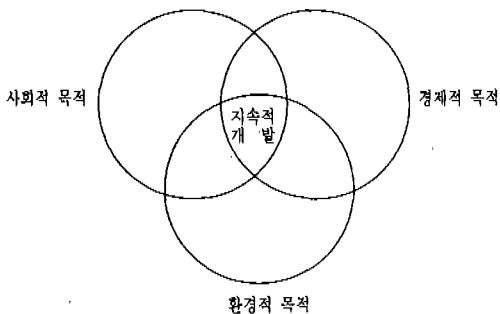
이 개념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정책의 목적으로는 “(1)성장을 재생시키고, (2)성장의 質을 변동시키며, (3)직업, 식량, 에너지, 물 및 위생에 대한 필수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4)지속가능한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고, (5)자원의 기반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며, (6)기술을 재지향하고, 위기를 관리하며, (7)의사결정 작성에 있어서 환경과 경제를 수렴하며, (8)국제 경제관계를 재지향하고, (9)발전을 보다 참여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개념은 최근들어 많은 환경단체와 국제개발기구의 주요 전략이 되었고, 1992년 리우데자네이투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도 공식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는 현격하여, 개도국은 환경파괴의 원인이 주로 선진국에 있으므로 선진국은 개도국에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환경문제와 빈곤문제가 주로 인구폭발과 국가관리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개도국의 민주화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의 사이는 환경과 발전에 대한 두 집단간에 참여한 이해 관계의 대립에서 오는 것이지만, 지속가능한 발전 혹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모호하고, 때로는 모순되는 개념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그것을 사용하는 당사자가 각각 자기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sustainable)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혹은 환경적으로 건전한”으로 해석하여 환경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도 있고, 반면에 지속적인 성장 혹은 성공적인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환경문제는 단지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문제로 축소되기도 한다. 특히 환경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기구나 회의에서 후자의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예컨대 UN주도하의 환경과 발전을 위한 세계위원회(WCED)의 보고서는 자원의 남용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오염뿐만이 아니라 빈곤도 생존을 위해 환경을 파괴할 수 밖에 없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빈곤, 성장, 생존, 경제적 위기 등의 문제를 환경에 앞서 전면에서 부각시키고 있다(WCED, 1987). 즉 환경과 발전은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서, 발전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환경의 악화가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양종회, 1994).

2. 지속적 개발과 삶의 질

ESSD의 목적은 다음 모델(그림-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UNESCO Connect, 1992).



<그림-1> 지속적 개발의 목적과 관련 분야

이 모델은 지속적 개발을 위해 국가나 지역의 개발계획을 포함한 정책과 투자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그들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사회체제로부터 다른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정책이나 가치를 그 자신의 결정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다음과 같은 다른 <그림-2>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2> 삶의 질과 매개변수

이 삼각형 모델은 지속적 개발의 感受에 있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媒介變數를 나타내 주기도 한다.

각 세개의 極點을 간단히 살펴보면, 생태적 극점은 생물학적 개발로서 인간 사회에서의 생태적인 어려움이나 욕구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환경교육은 특히 각 매개변수들 간의 균형성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준다. 경제적 극점은 인간 사회에서의 능력을 향상시켜 재화의 부족을 보충해 주고 경제적 활력을 넣어주는 것으로 생산성, 기술, Know-how 등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교육은 환경적 재활용(recycling), 자연 자원의 의의와 소중함, 경제적 가치 등에 큰 영향을 준다. 사회적 극점은 어떤 한 사회의 富의 蓄積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정당성이나 중요성에서부터 찾는 것이다. 세 영역의 핵심 사항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삶의 질 향상이며, 그 핵심 내용은 지속적 개발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 3대 관심사는 평화, 개발 및 환경보전으로서 이들은 세계의 지도자들 사

이에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환경적 관심은 국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적인 개발”로 목표가 좁혀지고 있으며, 이것들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나아가 인류사의 끝까지 계속될 것이며, 인류의 생존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환경보전의식과 노력은 특히 중요한 것이다.

III.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보전 의식

1.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인식

먼저,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과 학생들의 환경 오염 문제 인식 정도를 알아본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에 대해 1990년에 환경처가 민간 단체(대륙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적으로 조사한 ‘2000년대 우리나라에 닥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환경오염 문제’(63.7%)가 ‘인구팽창 문제’(17.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1위플 차지하였다. 이 응답은 가구 소득과 학력 수준이 높을 수록, 또 도시 거주자와 청·장년 층이 더욱 높게 반응하였다.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 해결과 환경 보전의 실천에 대한 요구도는 1993년 말의 주요 중앙 일간지들과 1994년 초의 주요 TV 방송국의 ‘새해에 국민들이 특히 바라는 것’에 대한 조사에서도 모두 3위 이내에 들고 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조사(서울시청, 1993년)에서는 ‘매우 심각하다’(67.4%)와 ‘심한 편이다’(31.6%)가 합쳐서 99%로서, 그 체감 정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서울 시민의 환경 오염 분야별 인식 정도 조사(동아일보, 1993년)에서, ‘살고 있는洞에서 어떤 공해가 특히 문제였는가’에 대한 답(해당 사항 모두 응답)에는 대기 오염(88.9%)이 가장 높고, 소음(46.4%), 쓰레기 오염(24.7%), 악취·진동, 지하수·약수 오염,

기타의 순서였다.

앞으로 환경오염 문제와 그 해결에 영향을 주게 될 학생과 교사들의 의식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조사(1991)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중등 학생들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대부분(97.0%)이 ‘심각’하다고 답하고 있으며, 오염 종류별로는 식수(77.6%), 공기(73.5%), 악취·쓰레기·공장 폐기물(65.6%)의 순서로 나타났다. 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환경오염 정도가 대부분(87.0%)이 ‘심각’하다고 반응했는데, 이러한 반응은 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요즘은 강조되는 국제화와 관련한 『청소년 국제 의식조사』(공보처 의뢰, 대륙연구소, 1994.5)에서 ‘국제화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북통일’(14.2%) 다음은 ‘환경문제 해결’(11.5%)을 꼽아서 최근 환경라운드(Green Round) 열풍이 드센 중에 청소년의 환경 문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주요 시사점이 될 것이다.

2.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 교육에 관한 인식

환경오염 문제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처 조사(1990)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중점 분야’에 대한 물음에 5위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 확대’(42.5%)에 이어, ‘교육과 홍보를 통한 계몽 강화’(29.5%)가 2위로서, ‘규제 및 지도 단속 강화’(28.5%) 보다 앞서고 있다. 그리고 ‘환경 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으로는 ‘매스컴을 통해서’(52.5%)가 제일 높고, ‘환경 교육’(29.3%), ‘일선 행정기관의 지도’(11.3%)의 순서로 환경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조사 보고(1993년)에서 ‘시민

들이 보는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분야별로 '잘한다'는 반응이, '환경 교육'면은 불과 21.3%였으며, '홍보'면은 45.6%, '시민이나 민간단체의 의견 수렴'은 17.9%였다.

서울 시민들은 환경교육 및 활동에 대해서는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행사나 활동, 교육등에 참여'한 적은 대부분(85.0%) 없으며, 참여한 것도 대부분(49.4%) 반사회나 동 구청에서 개최하는 모임이었고, 그 내용은 쓰레기 분리 재활용(44.2%)과 캠페인(29.9%)이었으며, 강의·세미나(20.8%), 답사·실험·실습(4.5%)은 매우 적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교육 활동은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일상 생활에서 환경보전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높게(75.6%)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교육 내용 구성은 환경문제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38.3%)과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방안 및 사례 제시(26.8%)로 해줄 것을 주로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식도 조사가 '낙동강 물 문제'이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더욱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리라고 본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 각자의 인식 정도와 실천에는 차이가 있음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IV. ESSD와 환경교육

1. 환경교육의 의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구를 지탱하는 생태계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의식과 가치 태도의 변화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모두 교육 및 홍보와 관련이 있다. 과거로부터 획득된 지혜와 경험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처할 관점과 능력을 길러 현재에 슬기롭게 임하며, 다음 세대에게로 계승토록 하는 교육은 바로 오늘날의 인류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은 지속적 개발을 위한 도구로서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직업을 창출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제공하는 과정들을 도맡아하여 가르쳐 오면서 인류의 소망인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널리 인정되어 왔다. 이제는 교육이 이루어 놓은 환경 이용과 산업화의 부산물로 나타난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다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환경교육은 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인간 자신 뿐만 아니라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교육의 의의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갖고 기능을 기르며, 참여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다. 즉, 환경의 개념,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 환경문제 발생 원인, 환경 오염 문제, 그리고 환경 보전의 방안 등이다.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ESSD의 실현, 건강하고 깨끗한 식품 섭취, 교통 안전 문제, 건전한 소비 생활, 건강 교육, 진로 안내, 민주 시민 교육 등도 포함되거나 관련된다.

이러한 환경교육에 대하여 초창기의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서 무관심하였던 나라들도 점차 환경교육적 견해와 접근 및 실행을 환경과 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자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동안 환경교육에 대한 노력과 결과는 국제적으로도 중요시되어 Tbilisi회의(1977) 이후 Moscow회의(1987) 및 UNESCO/UNEP의 다년간의 공동 노력과 이들에 의한 IEEP(Inter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m)의 실천, 그리고 UN이 '1992-2000'을 "환경교육을 위한 10년 (World Decade for Environmental Education)"으로 정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UN의 "System-Wide Medium Term Environmental Program(1990-1995)"의 수립과 실천, 나아가 UNCED의 Rio회의(1992)까지 이어지면서 환경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UN총회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

opment)”의 보고서(1991)에서는 Rio회의 이전에 이미 환경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형식교육(formal education)과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등으로 나누어 개발에서의 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형식교육을 통해서 경영과 탐구의 혁신, 기업정신에 대한 새로운 기여, 일반적이고 직업적인 기초적 기술 및 능력의 제공, 훈련되고 적절한 노동력의 양성, 더 향상된 교육과 재충전 및 재강화의 기회 제공, 경제 구조의 변화와 실적에 대비하는 기회 제공 등에 교육이 더욱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형식교육에서는 이것 외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신체적, 사회적, 재정적, 전통적, 관습적인 것들에 큰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적 컨센서스(consensus)를 이루는 것과 문제 해결의 대안들이 형식 및 비형식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2. ESSD를 위한 환경 교육 전략

환경에 대한 생태중심적 관점과 인류중심적 관점은 각각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많은 환경교육자들은 이러한 관점들을 그들 자신의 상황에서 어렵게 정당화 해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학문 영역에 속한 대부분 교육자의 견해는 환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현명한 사용”의 관점에 보다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속적 개발에 관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음의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지속적 개발의 실제적 의의와 그 발전을 위하여서는 학령전 교육에서부터 대학까지의 학교 교육 발전 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과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세대에 걸쳐 인식토록 하는 것이다. 환경 문제와 환경의 질은 어떤 개인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영속적인 것이며 계속 변화한다는 점을 이해토록 해야 한다.”(UNESCO, 1988)

이러한 생태적인 지속적 개발의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 교육 추진 목표로는 특히 다음의 것이 의미가 있다.(Disinger, 1990)

- ESSD의 지속적 개발의 세계관에 대하여 교육적 변화를 위한 학문적 관점의 명료화
 - ESSD적 사고와 생활 방식을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개혁 추진
 - 환경 문제를 靜態的 상황이나 일시적 부분적 관심사로만 다루지 말고, 생태적 개념을 모든 관련된 학문의 핵심 부분에 주입
 - 이 새로운 개념의 교육이 전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대학에 환경교육과 환경과학을 기본 영역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환경교육을 모든 지역 사회안에서 계속교육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확대
 - 인간과 환경 관련 생태적, 문화적인 다양한 관점과 장점의 연구와 분석 증진
 - 각 국가의 환경 교육을 지방 단위, 국가, 국제적 수준에도 연관시켜 구성하여 개발 이와 같은 ESSD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교육 실시상의 일반적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ESSD 개념의 명료화와 생태적이며 경제적인 것에 대한 이해 증진이다. 아직까지 이에 관한 定義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의 취급 범위가 모호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적이고 개발 위주의 교육에서 생태적인 것으로의 전환에 따른 각 원리와 상호 관계의 분석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 둘째, 생태적 지속 개발에 관한 적극적인 실천 행동 모델 및 바람직한 성공 사례의 개발과 제시이다. 이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생태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정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름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 셋째, ESSD를 위한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을 함에 있어서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개인적 행동과 가치를 증진하도록 한다. 환경교육의 최고 목표는 참여와 실천인데, 특히 가치 갈등이 심한 상반된 입장의 생태적이면서 경제

적인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교육은 다음 몇 가지 원리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統合的 원리에 따라 학제적(interdisciplinary)이며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인 접근 방법의 사용, 교육과 사회의 통합, 형식교육(formal education)과 비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등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繼續性의 원리에 따라 평생 교육으로 하되,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실시토록 한다. 아울러 衡平性의 원리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여러 분야를 균형있게 다루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ESSD를 위한 환경교육을 사회과학 영역의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요하다.

- 지구적인 문제 즉, 기아, 식량 부족, 인구성장, 각종 오염, 물자원 고갈, 전쟁, 건강과 질병 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속적 개발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이러한 지구적 문제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연 환경 개발 문제와 자연 환경 용량의 한계 문제 등에 따라 발생하는 미묘한 생태·정치적(ecopolitical)인 문제를 추출하여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 각각의 관점들에 교육적 면을 접목시켜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적 행동은 피교육자에게 효율적인 지속성의 개념과 더불어 예를 들어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와 같은 문제를 상호 비교하고 재해석하면서 조사, 관찰, 논쟁(debate), 모의놀이(simulation game)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길러지도록 한다.

3. ESSD를 위한 환경교육의 시급한 과제

우리나라에서 ESSD를 위한 환경교육의 과제와 개선 방안은 일반적 환경교육의 그것과 같이 매우 다양하나 특히 시급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ESSD에 관한 내용을 각급 학교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생태적인 것과 개발에 관한 국제적 또는 국내적인 초점이 어디에 있던 간에 특히 형식교육에 學際的으로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둘째, ESSD에 관하여 인식이 미흡한 교육정책 수립자, 교육내용 구성자와 교육자료 개발자 등에게 주지시키고 교육하는 것이다. 현재 이 새로운 개념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육 담당자들은 거의 생소한 상태이다.

셋째, 이 새로운 교육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와 내용 소개가 필요하다. 어떤 내용을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정설화가 필수조건이다. 이제부터라도 누군가가 앞장서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넷째, 환경관련의 학제적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EESSD는 자연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철학, 경제학, 환경과학, 지리학, 교육학, 역사학 등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를 환경교육에 포함시키기 위한 새로운 의미 부여와 방법의 사용 등 부문별로 구체적 전략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의미란 지금까지 개발 일변도의 교육 또는 환경생태론에 지나치게 치우친 교육적 관점이나 용어의 재해석과 정립 등이다. 새로운 방법 중에는 실험 실습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한 생태학적 기술 개발과 학습이 대표적인 예이다. 구체적 전략으로는 ESSD를 위한 부문별, 그리고 대상별-교사, 성인, 여성, 대학생 등-교육과 이들을 통합한 교육 전략등이다.

V. 맺음말

환경보전과 환경교육에 관한 관심과 요구는 매우 높아져서 최근에는 개발보다도 보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양자를 조화롭게 해결할 대안으로

ESSD는 환경교육 분야에서 아직 초보적으로 논의되면서 뚜렷한 방향 정립이 되어있지 못하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쟁점화되어 환경학계에서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부터 이 과제를 환경과학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분야까지 접목하여 재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나라 교육은 상당히 개발과 성장 우선주의에 큰 비중을 두어 왔으나 최근에는 생태적이며 환경보전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乖離感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부터의 환경교육은 이런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 환경교육에서 다루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교육 전체' 또는 '환경 문제 전체'와 거의 맞먹는 방대한 일이다.

근래에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1995학년도부터 적용될 초·중등학교 제6차 교육과정에서 중·고교에 「환경」관련 과목이 별도로 개설되고, 국민학교에서도 환경과목을 학교장 재량하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현재 각급 학교용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개발 중이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교양과목 등으로 환경 강좌가 많은 관심 속에 늘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환경교육의 양적 성장에 맞추어 질적 내실화가 중요한 과제인데, 여기에는 국내 및 국제적 이슈와 관심사들이 적절히 여과·선정되어 반영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특히 현 시기는 앞으로 수년 동안 사용될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개발하는 때이며,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환경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때이므로 ESSD와 같은 개념을 바르게 수용하여 교육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대륙연구소, 1990,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서울특별시, 1993, 「시민여론 모음집-서울시민의 생각을 아십니까」, 제2호
 양종희, 199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과 발전",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학술심포지움보고서, 「지속가능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사회」
 오홍석, 류근배, 최석진, 1991, 「환경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돈형, 남상준, 박범익, 최석진. 1991,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환경 교육에 관한 의식 조사」,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지구환경대책기획단, 1992, 「21세기 지구환경 실천강령」
 최석진, 1990, "환경교육의 방법과 자료", 「새 교육」, 통권 424호, 대한교육연합회
 _____, 1993, "학교환경교육의 역할과 지향 방향", 「ESSD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 심포지움」보고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_____, 1994, "국민들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 「國會報」, 3월호, 국회사무처
 _____, 199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의식과 환경교육",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학술심포지움보고서, 「지속가능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사회」
 한국환경교육학회, 1990, 「한국의 환경교육」, 교육과학사
 Bartelmus, Peter, 1986, *Environment and Development*, Boston.
 D. Scott Slocombe & Caroline van Bers, 1991, *Seeking Substance i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Washington D.C., Vol.21, No.1.
 John, F, Disinger, 1990, *Environmental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Washington D.C., Vol.21, No.4

- John Fien, 1993, *Education for Sustainable Living: A New Agenda for Teacher Education*, Griffith Univ. Australia
- National Curriculum Council, 1990, *Seven-Environmental Education*, London
- Queensland, Department of Education, 1992, *Teaching for Ecologically Sustainable Development*, Australia
- The University of State of New York, 1983, *Designing an Environmental Curriculum... A Process*, New York
- UN, 1991, *Report of Secretary General of the Conference*, General Assembly, N.Y.
- UNESCO-UNEP, 1988, 1992, 1993, *Connect*, Paris
- _____, *Congress: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raining, International Strategy for Ac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1990s*. Nairobi/Paris, 1988.
- UNEP, *System-Wide Medium-Term Environmental Program, For the Period 1990-1995*, Nairobi, 1988.
- WCED, 1988,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 Press, Oxford.